

인플루언서·팬덤 등 활용 S방역·K문화... '서울' 매력 알린다

서울시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계획
글로벌 리딩 도시 이미지 구축
맞춤 콘텐츠로 글로벌 시민과 소통

서울시가 세계에 서울시의 문화콘텐츠, 4차 산업혁명 기술, S방역(서울형 코로나19 방역), 투자 매력을 알린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안전 도시 지향, 포스트 코로나 대비, 도시 간 우호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21년 서울시 해외홍보 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

시는 IT·방역 등 첨단 안전도시 서울의 강점을 세계에 알리고 중화권·아세안에 친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프랑스·중국·일본·마카오 같은 도시를 타깃으로 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전략적 해외브랜드 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 마케팅 ▲해외방송과 디지털 매체 등을 이용한 도시마케팅 ▲엔터테인먼트 해외 마케팅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IT기술(스마트도시), K-방역, K-문화(케이팝, 한식, K-뷰티)를 포함, 각 해외도시의 관심사에 따른 전략적 프로모션(공연, 전시, 이벤트)을 진행한다. 또 해외 현지 언론이 집중할 수 있는 화제성 있는 이벤트를 개최해 이슈화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병행하기로 했다. 한류가 활성화된 도시에서는 팬덤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아울러 시는 영향력 있는 현지 인플



CAC 글로벌 서밋 2020 종합대담.

/서울시

루언서와 협업해 디지털 홍보 활동을 벌인다. 예컨대 아세안의 성장주역인 메콩권(베트남, 라오스)에서는 현지 인플루언서와 함께 경제성장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하고, 중화권 등에서는 역량이 있는 청년 유튜버를 발굴해 서울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해외방송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도시 마케팅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콘텐츠 제작 기술이 뛰어난 해외 유력 매체와 손잡고 서울 홍보 콘텐츠를 제작·확산해 글로벌 리딩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글로벌 경제지와 협업해 서구권에 투자창업의 도시 서울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스마트도시 정책 관련 온라인 포럼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 송출하는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비대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의 명소를 집에서 VR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탐방 프로그램과

인기 스타트업을 가상 체험하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글로벌 시민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미국 CES(세계가전전시회)에서 스마트 도시 프로모션으로 1481만달러 투자 유치에 기여했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서울명소 및 웨딩 영상·사진 콘텐츠 제작·확산으로 총 조회수 1599만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서울시가 세계도시들과 코로나19 대응 방법을 공유·논의하고자 개최한 'CAC 글로벌 서밋 2020' 화상회의는 영상 조회수 2547만뷰와 홈페이지 조회수 1117만뷰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남방·신북방 등을 타깃으로 해외홍보 프로모션에 집중해 다시 방문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서울'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 전국 최초 CCTV 설치 의무화

서울 내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에 안전관리를 위한 CC(폐쇄회로)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중·소형 민간공사장 10대 안전대책을 7일 발표했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

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로 적용돼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최근 3년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전화 한통으로 출입 관리 하세요”

서울시 '안심콜 출입관리' 도입

서울시는 전화 한통만으로 출입 관리가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 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 명부 작성을 병행하면서 '안심콜'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안내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출입명부 관리용으로 사용된 6자리 번호는 코로나19 종식 시 각 지자체 민원상담 대표전화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관광 활성화 '테마형 지도' 제작

'거리' 중심 제작

고양시가 밤리단·보넛길, 식사동 구제거리를 안내하는 거리지도 2종을 제작했다.

이번에 만든 거리지도 2종은 관광객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돕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리'를 중심으로 제작한 테마형 지도다. 거리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골목 상점을 비롯해 인근 지역에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추천 코스, 고양시 대표 관광지 등까지 유용한 관광정보가 풍성하게 실렸다.

밤리단·보넛길 거리지도는 '고즈넉한 감성과 마주하다'라는 컨셉으로 밤리단길의 새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정발산동 밤가시마을 주택가 일대의 맛집, 공방, 엔틱 소품샵 등을 여유 있게 거닐며 산책처럼 즐길 수 있다. 이곳은

처음에는 보넛길이라 불리다가 상권이 확대되면서 밤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됐다.

식사동 구제거리는 견달산로 주변에 구제상품 매장들이 하나 둘 생기면서 조성된 거리다. 이 거리의 지도 컨셉은 '신나는 구제거리- 패션 피플의 보물창고'다. 거리지도와 들고 복고 쇼핑을 즐기며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종류의 구제상품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고양시 문화유산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거리지도 제작에 이어 앞으로도 고양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지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티투어와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관광코스 개발 등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올 성평등기금사업에 10억 지원

1개 공모사업에 최대 3000만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권익 향상 추진

서울시는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민단체와 공동 협력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금액은 총 10억원이며, 1개 사업에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 분야로 나뉜다.

지정공모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돌봄공백 대응과 돌봄 봉사자 권리보장 방안 ▲성별임금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일·생활 균형 방안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방안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방안 사업으로 총 4개다.

자유공모는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서울 특화형 사업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여성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여성단

체와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지역중심의 풀뿌리 여성단체에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이달 21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의 적정성, 단체 사업수행 능력, 최근 1년간 여성 관련 사업 추진 실적, 금액상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3월 2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단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김현정 기자

파주시, 평화도시 기틀 마련 '첫발'

남북교류 협력·평화통일 교육

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평화도시조성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재)세종연구소가 4개월 간 수행해온 이번 연구용역은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추진됐다.

특히 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적으로 평화 메시지 확산을 통한 '준비된 평화도시 파주'를 실현하고 파주시민의 화합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을 통해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평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평화·통일교육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2단계로 단순화해, 기본교육 프로그램은 '통일'을, 심화교육 프로그램은 '평화공존'을 각각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평화공존 분위기를 시정 전반에 확산해 한반도 평화 수도 파주의 기틀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1월 8일 (금)

음력 : 11월 25일

수도권 날씨

-17 ~ -10°C

운중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47 | 해질 / 17:30

연천 -22/-11

동두천 -21/-10

백령도 -11/-7

파주 -23/-11

가평 -22/-10

서울 -17/-10

인천 -16/-11

양평 -20/-9

수원 -16/-10

용인 -16/-10

평택 -20/-9

·자료제공 : Kw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